

머무는 곳에서 즐기는 곳으로… 호텔, 엔터테인먼트 혁신

서울신라 '아트테크' 접목 패키지
홀리데이 인 광주
데이비드 호크니 등 거장작품 전시
소피텔 앤배서더 서울
객실 내 프랑스 문화·인테리어 구현

MZ 세대를 중심으로 '아트테크(미술 품 투자)' 열풍이 불면서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는 미술 작품과 문화를 이용해 호텔을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고 있다.

아트테크는 미술품 공동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적은 비용을 투자해 미술 작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은 젊은 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시설을 조성해 업장에 대한 접근 장벽을 최대한 허물고 있다.

먼저 서울신라호텔은 아트테크와 접목한 패키지 '폴 인 아트(Fall in Art)'를 새롭게 선보인다. 미술품 공동 거래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와 손잡고 선보이는 이 패키지는 호캉스 본연의 즐거



서울신라호텔은 아트앤가이드와 협업해 예술과 투자, 레저가 접목된 새로운 호캉스 상품을 출시했다. /호텔신라

움에 거장의 작품을 감상 및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됐다.

'폴 인 아트' 첫 선정작은 박서보 화백의 '묘법'으로, 모든 '폴 인 아트' 패키지 이용객은 '묘법 No. 071218' 또는 '묘법 No. 111020'에 대한 공동 소유권(5만원)을 제공받아 세계적인 명성의 작품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박서보 화백 작품은 평균 75%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을 넘어 글로벌 미술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아트테

크' 입문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미술품 투자를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신라호텔은 '폴 인 아트' 패키지의 판매기간 동안 두 작품을 호텔 지하1층 아케이드에 직접 전시하며, 고객들이 작품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폴 인 아트'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박서보 화백의 '묘법' 작품이 담긴 플레이트도 굿즈도 선사해 일상 속에서 그의 작품을 체험해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상무지구 소재의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현존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Photographic drawing' 시리즈와 'A Bigger Book-The DAVID HOCKNEY SUMO' 등 작품 3점을 최근 호텔 로비에 전시했다.

이는 기존 객실과 식음료를 서비스하는 호텔의 기능에 아트(Art)의 개념을 접목시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홀리데이인 호텔은 앞서 세계적인 조명 거장 알랭 퀄로의 조명 작품이 호텔 외관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도록 했으며 로비에 콜랜캠을 자동 연주 피아노를 설치, 계절과 시간, 스페셜 데이 등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인사동 엔티&아트페어 (IAAF)'는 오는 17~21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AHAF) 서울 2021'과 연결돼 진행된다.

'Fall in Fall(예술, 가을의 정취에 빠져들다)'을 주제로 내걸고 현대미술 중심이 아닌 고미술과 민화특별전 등의

공예 위주의 전시를 펼친다. 국내 40여 갤러리가 작가 400여 명의 작품 4000여 점을 안녕인사동 센트럴뮤지엄 (지하1층) 부스를 비롯해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 12층 및 14층에 위치한 35개 객실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가 이번에는 인사동 문화축제와 손잡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부터 신규 개관한 소피텔 앤배서더 서울은 '모던 프렌치 시크'를 콘셉트로 프랑스 문화의 향연을 호텔 방문객에게 느끼게 한다.

소피텔의 객실은 남녀 모두의 취향을 골고루 맞춰 다양하게 디자인 됐으며, 화려하면서도 럭셔리한 욕실이 포인트이다. 가구나 벽지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을 살렸다. 소피텔은 프랑스의 예술적인 삶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테리어와 더불어 고객의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돋기 위해 룸 내부의 구성에도 세심함을 기울였다. 매일 석양이 질 무렵 로비에서 점화를 시작해 계단을 거쳐 32층의 클럽 밀레지姆까지 불을 키며 고객에게 특별한 예술적 체험도 제공 중이다.

/원문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CJ,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 진출

〈위탁개발생산〉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인수 "레드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CJ가 해외 바이오테크놀로지(BT) 기업을 인수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CGTCDMO) 시장에 진출한다.

CJ제일제당은 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기업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Batavia Biosciences)의 지분 약 76%를 2677억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 공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바타비아 대주주는 2대 주주인 자회사 경영진으로 남아 사업운영을 계속하며 CJ그룹의 일원으로 새로운

성장전략 실행에 매진한다. 양사는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세대 바이오 CDMO란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시료, 상업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030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140억~160억 달러(약 16.5조~1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타비아는 글로벌 제약사 얀센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맡았던 경영진이 2010년 설립했다. 이 회사는 바이러스 백신 및 베터(유전자 등을 체내 또는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의 효율적인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독자

역량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전자 치료제 및 백신 제조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바타비아의 기술 및 공정 개발 최적화 플랫폼을 활용하면 상업화 단계에서 기존 기술 대비 생산 비용 50% 이상 절감, 개발 기간 6개월 이상 단축이 기대되며, 제품 안정성 향상이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바타비아 인수로 글로벌 유전자치료 CDMO 시장에 진입하며 기존 레드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앞서 제일제당은 생명과학정보기업 '천랩'을 인수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했다.

케마스는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제 특허를 2020년 5월에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통해 2020년 7월에 '육산화사비소(As4O6)'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케마스는 세포 실험 결과 적정 농도

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 사멸 된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유전체 분석에서는 As4O6가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억제하는 반면 세포 보호를 담당하는 유전자 별현은 상승시키는 작용을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As4O6가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까지 원천적 차단하는 효력을 확인했으며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작용 기전까지 규명

했다.

항암 신약 후보물질 As4O6은 케마스 고유의 합성기술로 연구·개발·제조 완료한 물질이다. 현재 독일소재 cGMP 시설을 갖춘 원료 전문회사와 제약회사에서 원료와 임상용 완제품까지 위탁생산을 완료한 상태다.

또 독일 식약청에 항암제 임상1상시험에 대한 사전심의를 마쳤으며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임상계획까지 논의를 마쳤다.

/이세경 기자

스탠다임 SK케미칼 본사내 합성연구소 신설

물질 합성 분야 생산성 향상 기대

인공지능(AI) 신약개발사 스탠다임은 전략적 파트너사인 SK케미칼 본사내에 합성연구소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탠다임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현재 42개 신약후보물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중 SK케미칼과 공동으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공동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스탠다임은 이번 합성연구소 신설로, AI 기술 기반 신약 개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물질 합성 분야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일 SK케미칼 본사에서 열린 스탠다임 합성연구소 개소식

연구소는 SK케미칼의 판교 연구소 내에 위치해,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설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브랜디 310억 규모 투자 유치

브랜디는 기존 투자자인 에이티넘인 베스트먼트, K2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DS자산운용으로부터 31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올해만 별써 세 번째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브랜디는 이번 투자 건을 포함해 누적 투자 유치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총 투자 유치액은 1060억원으로 브랜디가 올해 유치한 투자만 610억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는 기존 투자자들로만 진행돼 브랜디의 지속 성장성에 대한 신뢰 기반 투자가 성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문미 기자

'랩스글루카곤 아날로그' 과제 선정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혁신적 히귀질환 치료제가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국가지원 신약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랩스글루카곤 아날로그(HM15136)'가 국가신약개발재단의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제약기업과 연·병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

번 선정으로 한미약품에는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과 제품화 연구를 위해 24개월간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다.

랩스글루카곤 아날로그는 세계 최초 주1회 투여 목표로 개발중인 지속형 글루카곤 유도체로,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와 투여 주기를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독자적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체내 포도당 혈성을 촉진하는 글루카곤의 짧은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등 저혈당 히귀질환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국가지원 신약개발사업 선정

번 선정으로 한미약품에는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과 제품화 연구를 위해 24개월간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다.

랩스글루카곤 아날로그는 세계 최초 주1회 투여 목표로 개발중인 지속형 글루카곤 유도체로,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와 투여 주기를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독자적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체내 포도당 혈성을 촉진하는 글루카곤의 짧은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등 저혈당 히귀질환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